

住居의 儀禮空間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itual Space in Housing

金 啓 童

Kim, Kye Dong

李 英 鎬

Lee, Young Ho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rinsic meaning of housing according to meaning of ritual space in Korean housing.

At a traditional housing, the rites give a sacred characteristic, and grade of ranks to space. According to rites, Malu(Dae-Chung) is a male's space, and An-Bang is a female's space. At a present housing, the central characteristic of An-Bang and sexual division of space are weakened and the space of dead person is disappeared. But the rites and ritual space give sacred characteristic, stability and identification in housing.

I. 序 論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본 사람은 쾌적하고 안락한 호텔보다 비록 누추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는 住居란 物理的인 價値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뿌리와 중심으로서 自我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과 孝, 그리고 禮가 특히 중요시되어 이를 위한 의례생활이 인간생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므로서 住居空間이나 住居生活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의례들이 행해지는 주거공간은 세속적인 外部와 분리되는 聖스러운 空間으로서, 보다 중요한 象徴的 意味를 부여받게 되며, 그러므로서 단순한 물리적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人間實存의 터전이며 정신적

삶의 中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정신적 가치와 생활이 변화하고 儀禮 또한 그 중요성과 형태가 변화하면서 의례를 통해 표출되고 강화되던 儀禮空間의 象徴的인 意味들 또한 크게 변모되었다. 따라서 주거에서 儀禮를 통해 표출되던 空間의 意味와 變容 양상을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의 住居空間에 내재된 意味를 찾고 나아가 한국주거의 正體性을 확립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주거의 空間의 意味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陰陽論(이강훈, 1988, 이원교, 1989), 風水地理說(유재현, 1979, 이영호, 장백기, 1984), 民間信仰(박언근, 1989, 정영호 외, 1991, 강영환, 1992), 儒敎(이왕기, 1986, 조중근 외, 1994, 이선옥 외, 1992) 등과 관련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住居空間에서 儀禮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주거내에서 이루어지는 儀禮를 통해 주거의 意味를 살펴본 것으로, 이는 또다른 관

* 정희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 정희원,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점에서 意義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례와 의례공간은 전통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과 변용을 해 온 결과이므로 전통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전통주거에서부터 현대주거에 이르기까지 儀禮空間의 意味와 變容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住居가 갖는 深層的이고 本質的인 意味를 찾아봄으로서 의례공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韓國住居의 正體性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儀禮와 儀禮空間

1. 人間과 儀禮

文化的으로 標準化된 언어와 행위에 의한 모든 價値의 象徴的 表現을 儀禮¹⁾라 한다면, 儀禮는 수천년 동안의 생활과 사고와 다양한 思想들의 축적으로 나타나므로 의례의 이해는 한 민족의 象徴體系를 이해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한 문화속에 내재하는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즉 미래의 행복에 대한 믿음과 불행의 극복을 기대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떤 變化의 계기를 맞으면(시간적인 것이던, 공간적인 것이던, 삶의 내용이던지간에) 그것에 意味를 부여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을 서로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儀禮이다. 또 때로는 인간과 사회를 조직하고 재편성하며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共同運命體로서의 일체감을 強化시키는 기능²⁾을 한다. 이처럼 儀禮는 단순한 미신이나 주술, 종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人間과 그 文化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意識의 象徴이라 한다면 儀禮는 이와는 다른 차원 즉 意識의 層을 넘어서 無意識과 신체-생리의 차원에 직접 달하는 능력을 가진 象徴을 통해 기능하는 것으로³⁾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2. 儀禮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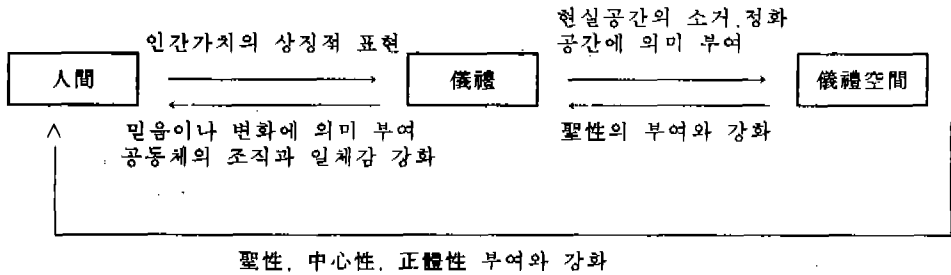
의례가 문화의 本質的 特性을 반영하는 것이 라면 인간이 만든 가장 중요한 문화의 하나인 주거 또한 儀禮와의 관련에서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지구상의 모든 장소와 공간이 동일할지라도 인간에게 그 意味는 다를 수 있다. 즉 똑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그속에 들어가 살게 됨으로써 그곳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나의 집, 나의 공간이 되어 삶의 中心이 되고, 다시 마을,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점점 세계로 확대되어간다. 이러한 중심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세계속에서 正體感을 갖고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데 이는 의례를 통해 더욱 強化될 수 있다. M.Eliade는 인간에게는 宗教的 經驗 즉 儀禮를 통해 거룩하고, 강력하고, 뜻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공간의 비균질성은 原初的인 經驗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에게 집은 그 자신을 위해 건설한 우주로 宇宙論的 象徴 또는 祭式에 의해 聖化되는데 고도로 탈신성화된 사회에서조차 새로운 집에 정착할 때 따르는 축제기분과 즐거움은 자신의 집을 象徴的으로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하는 意識이 된다고 하여⁴⁾ 儀禮를 통해 空間 즉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상의 성스럽고 中心的인 空間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공간과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空間에서 儀禮가 수행될 때 儀禮는 그 의미를 만족시키고 기능을 보다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에게 中心性과 正體性을 부여하고 강화한다. 이처럼 儀禮는 주거가 물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의 충족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되게 한다.

이러한 人間과 儀禮, 儀禮空間의 관계를 정리하면 < 그림 1 > 과 같다.

의례는 내용과 대상, 시기가 다양하여 여러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⁵⁾, 본 논문에서는 주거

- 1) Turner V.W. Symbols in Africa Ritual. Science. Vol.179.1973.p.124.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p.6에서 재인용.
- 2) 韓相福 外, 文化人類學概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281.
- 3) 竹澤尙一郎, 象徴と權力, 勁草書房, 1987. p.59.

- 4) 李東夏 譯, M.Eliade, 聖과 俗, 학민사, 1990. p.17.
- 5) Turner는 통과의례와 고난의례로 de Heusch는 주기의례, 기회의례, 통과의례로 Smith는 주기의례와 기회의례, 개인의례와 집단의례로 竹澤尙一郎은 先行儀禮와 週及儀禮로(竹澤尙一郎, 앞의 책, 1987. pp.83-84), 강동학 등은 일생의례, 종교의례, 생산의례로 구분하고 있다(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pp. 169-189.)



〈 그림 1 〉 人間, 儀禮, 儀禮空間의 關係

에서 이루어지는 儀禮를 인간의 삶과 관련한 一生儀禮⁶⁾와 세시의례, 건축의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傳統住居에서의 儀禮空間

1. 儀禮空間의 影響要因

전통주거 그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의례공간에는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한 思想的 要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에 공포를 느끼며 경배하던 原始的인 인간의 인지가 계발되면서 나타난 종교다운 신앙체계를 東洋에서는 天思想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상은 주거공간에서도 나타난다. 祖上儀禮의 중심인 宗家は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사당도 높은 곳 내지는 住居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워지며 바닥을 마루로 하여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 天思想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하늘인 한울은 극히 인간적인 면을 띠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天에의 숭배보다 祖上崇拜를 더 중요한 것으로 몰고 가 조상숭배사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만든 한 요인이 되어 조선시대 유교에 의한 祖上崇拜思想의 바탕이 된다. 儒敎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肉身과 靈魂이 분리되고, 분

리된 靈魂은 祖上神으로 되어 死後에도 子孫과 함께 산다고 믿어 조상의 거처가 주거내에 요구된다. 특히 儒敎가 조선조의 통치이념이 되면서 일종의 국민윤리로서 양반들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禮意識이 고취되고 광역화되면서 사회의 질서유지, 조상숭배, 가문의 계승과 질서유지 등에서 중요시되어 일상생활 이상의 意味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주거공간에서도 조상의 공간과 자손의 공간 즉 사당과 일상공간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儀禮를 위한 공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우리 민족의 우주관의 기초를 이루는 음양오행설 또한 儀禮空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聖으로서의 神과 俗으로서의 人間 곧 陰의 神과 陽의 人間이 동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제의이며, 의례가 수행될수록 陰과 陽의 반복에 의해 陰性은 강해지고 공간은 일상의 陽의 空間, 世俗의 空間과 구별되는 더욱 신성한 공간으로 된다.

近代化 이전의 한국사회는 대체로 여성 중심의 무속적 문화와 남성적 유교문화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儒敎의 영향은 주로 조선시대에 집중되는 반면 巫俗은 수천 년동안 사회와 문화의 기본을 이루어 왔다. 巫俗信仰에서는 인간은 신이 만들어 낸 산물로 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성인이 되어서는 신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기대와 댓가로 신을 모시고 위해야 하므로 전통주거에서는 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 신을 위해 儀禮를 행한다. 의례를 통해 모셔진 신에는 位階가 있고 이에 따라 공간 또한 위계가 정해지며, 더욱 신성한 공간으로 된다.

6) 일생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의 新子로부터 출생, 성년, 혼인, 회갑, 죽음과 재사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일생동안 거치는 여러 의례를 일생의례라고 한다. 이는 서양의 통과의례, 유교적 용어인 관혼상제보다 한국인이 한평생 거치는 의례를 적합하게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본다(민속학회, 앞의 책, 1994, p.169.).

2. 儀禮와 儀禮空間의 意味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傳統住居의 儀禮에 따른 空間의 사용을 주거공간과 관련이 깊은 부분을 주로 하여 정리하면 < 표 1 > 과 같고, 이에 따라 空間의 意味를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1) 住居

출산이나 안택고사시 문앞에 치는 금줄, 집들이를 시작하는 문긋, 설날과 立春, 동지의 세시의례 등 문에서의 의례를 통해 外部의 잡귀와 厄의 出入을 막아 주려는 神聖한 儀禮空間으로 된다. 婚禮에서도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올 때 문앞에 짚불을 놓아 內部를 外部의 부정에서 보호하고 聖스러운 空間으로 만들며, 또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경우의 여러 儀禮들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보여진다.

이러한 住居의 聖域化는 지붕을 통한 儀禮에서도 이루어진다. 大禮가 치러지는 마당은 차일 즉 지붕에 의해 위로 통하는 외부와 구분되고 내부는 보호받는 聖스러운 儀禮空間이 된다. 또한 臨終을 맞이하면 지붕을 향해 '복'을 외치는데, 이는 지붕을 이승과 저승의 境界로 보고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이와 같이 住居의 內, 外의 경계인 문과 지붕에서 행해지는 儀禮를 통해 住居內部는 聖의 空間으로, 外部는 俗의 空間으로 구분된다.

2) 안방

처음 태어난 아기는 완전하지 못한 人間으로 여러가지 위험에서 가장 安全하게 保護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시 그 주위에 황토를 뿌리며, 삼신상을 차려 치성을 드림으로서 안방은 聖스러운 의례공간이 된다. 이 聖性은 지신밟기에서 삼신굿이 드러짐으로서도 역시 강화된다.

婚禮에서, 함을 받아 안방에 가지고 들어와 꺼내보며, 木雁도 안방에 던져 子孫을 점친다. 그리고 媿宅에 처음 간 新婦는 안방에서 큰상을 받고, 시집살이를 거쳐 언젠가 안방을 차지함으로써 그 집의 완전한 일원이 된다.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남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하나로 이와 관련되는 婚禮와 出産이 안방에서 이루어짐은 안방이 한 家門의 지속과 번영을 상징하는 성스럽고 중심되는 儀禮空間임을 뜻하며, 아들을 낳는 것이 주된 임무인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女性中心의 儀禮空間이라 할 수 있다.

안방에서 生을 부여받은 人間은 자신의 집 그중에서도 안방에서 臨終을 맞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客死를 한 것이 되어, 집에 돌아와 葬禮를 치르지도 못하는 불행한 죽음이 된다. 아울러 서민주택에서는 祖上神 또한 안방에 모셔짐으로서 인생이 시작되고 끝날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자손과 연결되는 生의 中心空間이며 儀禮의 中心空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방은 佛敎에서 말하는 三生(前生, 現生, 後生)이 이어지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오고 떠나는 성스러운 空間이 되는 것이다.

3) 마루(大廳)

집을 지음에 있어 上樑儀禮를 통해 성주신이 탄생되는데 이는 주거가 생명을 얻음을 의미한다. 또 반복되는 성주굿을 통해 집안전체의吉凶禍福이 祈願됨을 볼 때 성주신은 집안전체를 다스리는 신이며, 성주신이 거처하는 마루(대청)는 성주신을 통해 住居의 생명을 이어가는 집안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고 많은 儀禮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婚禮의 경우, 마루(대청)가 넓을 때는 大禮가 치루어지고, 婚禮의 상징물들이 전달되며,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아 방으로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신랑에게 접근이 허용되는 緩衝的인 매개의례공간이다. 또 마루(대청)에서는 喪廳이 차려지고 제사가 모셔지는데, 이는 마루(대청)가 땅과 분리되어 하늘과 가까운 신성한 儀禮空間이면서 매개의례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死者의 靈魂은 산자와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았으며, 喪禮와 祭禮의 과정중에는 많은 외부인이 출입하므로 이를 위한 매개의례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마루(대청)인 것이다.

의례에서 볼 수 있는 마루(대청)의 또다른 의미는 男性中心의 儀禮空間이라는 것이다. 안방이 여성이 주가 되는 의례공간이라면 마루(대청)는 그곳에서의 儀禮가 주로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고 성주신이 戶主와 관련을 가짐을 볼 때 男性中心의 儀禮空間이 된다.

4) 부엌

친정을 떠나는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 술뚜껑을 세번 들었다 놓고 작별을 고하는 것, 이사를 할 때 술을 안고 들어가 밥을 지으면 이사를 한

< 표 1 > 전통의례와 의례공간사용⁷⁾

儀 禮		儀 禮 內 容	儀 禮 意 味	儀禮空間	
一 生 儀 禮	出生 출산준비 출산 삼칠일 백일, 돌	문을 열어두고 산모는 안방으로 옮김 금줄을 치고 삼신상을 차림 금줄과 삼신상 치우며 외부인 방문 삼신에게 치성드리고 잔치	출산의 용이함과 신성함 부정을 막고 삼신에게 보호받음 산모는 일상으로 돌아옴 아기의 성장에 감사	문, 안방 문, 안방 주거 주거	
	冠禮 告祠堂 三加禮	관례 3일전에 사당에 고향 상투를 쓴 후 어른들에게 절함	조상숭배 청년이 되었음을 확인받음	사당 대청, 사랑방	
	婚 禮	사주받기 初行 합팔기	대청에서 사주를 받아 안방으로 들여옴 햇불을 밝혀두고 신부집으로 향함 신랑은 짚불을 넣어 들어가고 신부측은 함을 받아 안방에 들임	약혼의 징표 불의 정화력으로 잡귀를 쫓음 의례공간 정화 안방의 중심성	대청, 안방 대문, 마당, 안방
		尊雁禮 大禮 再行, 再引行 친가와작별	木雁에 신랑이 분향예배한 후 신부측가 목안을 싹둑이나 안방에 던짐 交拜之禮와 交杯之禮 신랑만 분가나 이웃마을에 가서 자고 음 신부는 부엌에 들어가 술뚜껑을 세번 들었다 놓고 작별을 고향	기러기처럼 부부연이 계속되길 빌며 기러기를 던져 자손을 점침 혼인의식으로 백년해로를 기원 전이의례 과정 부엌(술)과 여성과의 밀접함	마당, 안방 마당, 주거 주거 부엌
		于歸 禮	신랑은 집에 도착해 국수 떠먹고 신부는 짚불을 넘거나 바가지 껌 신부가 안방에서 큰상을 받음 상을 차려 시댁어른들께 인사드림 사당에 고향	시집살이가 험기를 기원하고 잡귀와 부정을 쫓음 신부에 대한 대접 시댁 사람과의 첫대면 조상숭배 부엌에서 일상생활 시작	부엌, 굴뚝, 마굿간, 대문 안방 마당 사당 부엌
	喪 禮	큰상받기 현구고래 告祠堂 삼일입부	3일만에 부엌에 나가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바치고 일운 시작		
		입중 복 사갓상 영습과입관 發期	환자를 안방으로 모셔 입중 준비 지붕을 향해 북을 외침 사갓상을 대문밖에 차려 두 수의를 입히고 입관 도끼나 톱으로 문지방을 찍거나 자른뒤 문지방을 넘어 땃돌알 바가지개고 나옴	안방의 중심성, 신성성 떠나는 혼이 돌아오기를 바람 문안은 저승사자가 접근할 수 없음 사자와 산자의 일차 분리 사자와 일상과의 완전한 분리 잡귀의 범접을 막음	안방 마당, 지방 대문 안방 문지방, 마당
	祭 禮	下官 返魂 소상, 대상	주검을 무덤에 모심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빈소에 모심 빈소를 철거하고 혼백을 사당에 모심	주검은 무덤에 자리잡음 조상신으로 되기 위한 전이의례 과정 사자는 조상신이 되고 산자는 일상으로	무덤 대청, 사랑 사당
		祭 禮	제례준비 제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 신위를 사당에서 모시고 나와 제청 에서 제사지낸후 다시 사당에 모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공간을 정화 산자와 사자의 일시적인 만남과 분리
	歲 時 儀 禮	설	장군신을 문에 붙이거나 호랑이나 닭그림, 龍虎라는 글을 써붙임	잡귀의 범접을 막고자 함	대문
立春		春靚, 春帖子	기둥이나 문에 좋은 글을 써붙임	대문	
정월 보름 지신 밝기		뚝깎기	개개의 집들이 시작	집에 들어서는 통과 의례적 요소와 잡귀의 범접을 물리치는 신앙	대문, 마당
		조왕굿 성주굿 삼신굿 토주굿 마당굿	부엌의 신(여신, 주부의 신)에 기원 집안의 신(남신, 가장의 신)에 기원 아이들 위한 신에 기원 조상신에게 기원 집터를 지켜주는 신에 기원 집들이의 마무리	가족의 건강과 무사고, 수명을 기원 집안의 길흉화복을 기원 인태, 출산, 육아의 무사를 기원 후손의 돌봄과 풍년을 감사 집터의 기운을 복돋아 줌 집안일의 원만함과 이웃과의 편안함기원	부엌 대청 안방 안방 장독대 마당
		10월	안택고사	금줄을 치고 황토를 문앞에 뿌려 부정을 막고 제사지냄	성주신을 모시고 가내평안을 기원
동지		빨죽을 문에 뿌림	붉은색의 정화력으로 재앙을 물리침	문	
建築 儀 禮	땃고사 모탕고사 상량 의례 집들이고사	집지음을 알리는 고사(집주인이 주관) 공사시작에 앞서 올리는 고사(대목) 상량문을 작성하고 북을 비는 기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잔치를 베풀	토지신의 소유인 땅을 빌리는 의식 상량신에게 공사중의 안전을 기원 성주신이 탄생 건물의 정화, 복된 생활과 수명을 기원	집터 집터 대청 집안전세	

7)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I, III,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일생의례): 李光奎, 韓國人
의 一生, 螢雪出版社, 1985. PP.39-142. (일생
의례):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고려대 민족문
화연구소, 1988. pp.61-124. (혼례): 민속학회, 한국

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pp.111-121.
(세시의례): 임채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
산업사, 1994. pp.312-337. (세시의례):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pp.173-207. (건
축의례):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9. pp.37-53. (건축의례)

것이 되는 것, 집들이고사에서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중요한 儀禮의 하나인 것은 부엌, 특히 솥과 아궁이가 그 집의 살림을 象徵하는 것임을 意味한다. 이는 신랑이 부엌에서 국수를 먹음으로써 시집살이가 쉽기를 기원하는 것이나 신부가 시댁에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떠 놓고 조왕신에게 고하고 난 뒤 일을 시작함으로써 婚禮가 마무리됨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부엌은 女性的 주된 일터 내지 基本的 生活的 장소이고 시집살이의 象徵空間이다.

5) 마당

혼례시 마당에서 함을 받고 奠雁禮가 이루어지고 大禮가 치러지며, 新婦가 마당에서 친구들과례를 드리는 것은 마루(대청)와 마찬가지로 마당이 外部와 內部를 연결하는 媒介空間임을 나타낸다. 이는 문굿으로부터 시작된 집들이가 마당굿을 거쳐 마지막에 마당굿에서 끝나게 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喪禮時 떠나는 영혼을 부르고, 發靱儀禮에서 주검은 住居와의 이별을 고하는 것에서, 마당이 외부로 이어지는 媒介儀禮空間의 意味를 가짐을 알 수 있다.

6) 祠堂

사당은 死者의 靈魂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冠禮나 혼례시, 또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祠堂에 고한다. 특히 家禮에서 시댁에 온지 3일내지 3개월만에 祠堂參拜를 하게 하는데, 이는 신부가 시댁에 온 뒤에도 일정기간을 거쳐 보다 완전한 그 집의 일원이 되어야만 參拜할 수 있는 가장 上位의 神聖空間인 것이다.

위의 儀禮空間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각 空間은 聖性에서 位階를 가짐을 볼 수 있다. 문, 문지방이나 지붕은 淨化儀禮를 통해 俗域과 聖域을 구분하는 경계로 일차적인 聖性を 부여받는다. 그리고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마당에서 마루(대청)로 갈수록 聖性は 강화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안방이 일상생활공간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그리고 사당은 祖上神의 거처로 일상의 생활과 분리되어 항상 聖性이 유지되는 絶對的 聖域이 된다⁸⁾.

그리고 사랑채는 冠禮時, 祭禮時(祭廳이 사랑채에 있을 경우)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마당에서 행해지는 의례도 사랑마당보다는 안마당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랑채, 사랑마당보다 안채, 안마당이 의례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안채, 안마당이 儀禮의 중심이며 본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IV. 儀禮空間의 變容

1. 影響要因의 變化

전통적인 儀禮와 儀禮空間은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가치관, 住居空間 등의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그 의미 또한 변화하고 있다.

1) 價値觀의 變化

전통적인 宇宙觀과 運命觀은 많은 부분 소멸된 듯이 보이기도 하나 여전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조상의 묘자리를 탓하고, 吉日로 알려진 날에는 이삿짐센터와 예식장이 성업을 하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학관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西歐의 과학적인 合理主義와 기독교 사상의 전파로 전통적인 가치관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운명을 믿고, 儀禮를 통해 미래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기독교적 사고로는 조상이 神格化되거나 의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家族共同體 意識은 儒敎에 의해 父母에 대한 孝와 家門이 중요시되어지면서 家族主義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가족주의가치는 근대사회의 변화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어 전통적인 父系直系家族構造의 원리속에서 아들을 선호하고 家門의 永續과 祖上에 대한 孝를 중시한다. 한편으로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독립을 강조하기도 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고 意識과 行動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 때의 가족 또한 祖上에서부터 子孫에게로 이어지던 광범위한 개념에서 부부와 그 자녀정도로 축소되어지는 경향이다. 즉 가족의 범위는 축소되

8) 李英鎬, 金啓童, 通過儀禮를 통해 본 傳統住居의 空間의 意味,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1집, 1995. pp.19-20.

어졌지만 家族主義價値는 지속되면서 儀禮에 관한 意識과 行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회는 농업위주의 정체성이 강한 사회로 사회전체의 價値가 중요했던 반면, 현대사회는 다양한 산업구조와 직업, 그리고 빈번한 이동성, 個人主義的인 價値觀등의 영향으로 지역과 개별 가족 및 개인적 특성이 儀禮空間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住居空間의 變化

개항 이후 도시주거의 변화중 하나는 祠堂과 사랑채의 소멸을 들 수 있다. 都市住居에서 空間의 부족과 身分制度의 撤廢 등으로 사당이 소

멸되어지면서 전통주거에서 일상공간 보다 중시되던 의례공간은 변화되었다.

전통주거에서 儀禮空間은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당과 대청의 매개공간을 거쳐 안방으로 이어지는 의례의 반복으로 그 聖性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현대주거에서의 住居空間의 內部化와 거실의 등장은 마당의 기능을 축소시켜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킴으로써 의례공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2. 儀禮와 儀禮空間의 變容

현대주거의 儀禮와 공간사용은 喪禮와 祭禮

< 표 2 > 현대의 의례와 의례공간사용⁹⁾

儀 禮		儀 禮 內 容		儀 禮 意 味		儀 禮 空 間		
生	出生	출산 되일 삼칠일 백일, 돌	병원에서 출산 집에 돌아와 외부인의 출입을 금 외부인의 방문 허용 삼신에게 치성드리고 잔치	집에 오면서 주거와의 만남 시작 산모는 일상으로 돌아옴 아기의 무사한 성장에 감사	안방 주거			
	婚	사주보내기 함팔기 예식 신혼여행 于歸 큰상받기 현구고례	사주를 보냄 신랑친구들이 함을 지고와 팜 대례와 폐백 여행을 마치고 신부집에 먼저 감 시침을 감 신부가 안방에서 큰상을 받음 상을 차려 시댁어른들께 인사드림	혼인을 약속 혼례의 상징물음 전달 혼인을 인정받고 알림 전통혼례가 신부집에서 행해진 풍습의 잔재 친가와 분리 신부에 대한 대접 시댁 어른들께 인사	안방, 마루 대문, 현관, 마루 예식장 집안전체			
	喪	입중 葬禮	환자를 안방으로 모셔 입중 준비 지붕을 향해 이름을 부르며 복을 외침 사자상을 대문밖에 차려 둠 수의를 입히고 입관 도끼나 톱으로 문지방을 찍거나 자른뒤 문지방을 넘으며 냇물앞의 바가지 깨고 마당에서 발인제	환자를 안방으로 모셔 입중 준비 지붕을 향해 이름을 부르며 복을 외침 사자상을 대문밖에 차려 둠 수의를 입히고 입관 도끼나 톱으로 문지방을 찍거나 자른뒤 문지방을 넘으며 냇물앞의 바가지 깨고 마당에서 발인제	안방의 중심성, 신성성 지붕을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봄 문안은 저승사자가 접근할 수 없음 사자와 산자의 일차 분리 사자와 일상과의 완전한 분리 잡귀의 범접을 막음	안방, 자기방 마당, 마루, 지붕 대문 안방, 자기방 문지방, 마당		
		하관 返魂 소상, 대상	주검을 무덤에 모심 흔백을 집으로 모셔 빈소에 모심 빈소를 철거하고 擧魂	주검을 무덤에 모심 흔백을 집으로 모셔 빈소에 모심 빈소를 철거하고 擧魂	사자의 주거인 무덤에 자리잡음 전이의례 분리를 끝내고 산자는 일상으로	무덤 마루, 자기방 집안전체		
祭	제례준비	집안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 하며 제사 준비 마루나 안방에서 제사	집안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 하며 제사 준비 마루나 안방에서 제사	제례를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공간을 정화 산자와 사자의 일시적 만남과 분리	주거			
	제사	입춘방 지신밟기 동지의례	입춘방 마당에서 집들이 팔죽을 문에 뿌림	주거공간의 보호와 가족의 행복 가정의 편안함을 기원 붉은 색의 힘으로 집안을 정화	마루, 안방			
歲時 儀禮	立春 보름 동지	입춘방 지신밟기 동지의례	입춘방 마당에서 집들이 팔죽을 문에 뿌림	주거공간의 보호와 가족의 행복 가정의 편안함을 기원 붉은 색의 힘으로 집안을 정화	대문, 현관 마당 문			
禮樂 儀禮		신축의례 집들이의례	공사의 시작에 앞서 고사물 지냄 친척과 친지를 초대하여 잔치 벌임	공사의 무사함을 기원 이사를 알리고 번영을 기원	집터 집안전체			

9) 민속학회, 앞의 책, 1994, pp.111-180. (일생의례, 세시의례);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 조선일보사, 1990. (일생의례); 李裕美,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의례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p.64-87. (제례, 상례); 李英鎭, 金啓重, 都市住宅에서의 祭禮空間使用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0집, 1994, pp.1-14. (제례)

는 비교적 전통성이 강한 반면 다른 儀禮들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현대의 儀禮와 儀禮空間의 使用을 정리하면 < 표 2 >와 같고, 이에 따라 空間의 意味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住居

문을 경계로 하여 주거가 外部와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인 內部로 구분되어짐은 여전하다. 의례를 통해 주거는 외부의 俗의 空間과는 구별되는 聖의 空間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신과 가족만의 공간으로 되어 보호받고 安住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집을 지을 때 고사를 지내고, 대들보가 없는 건축구조임에도 形式的으로 성주신을 모시는 상량식을 하는 경우까지 있으며¹⁰⁾, 입춘방을 써붙여 福을 기원하고 동지팔죽을 뿌려 집을 정화하는 儀禮를 아직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문에서의 儀禮를 통해 住居는 다른 空間과 구별되는 의미있고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傳統住居에서는 대문이 이 경계의 역할을 했지만 현대주거에서는 현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대문이 없으므로 현관문이 경계가 된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도 현관문 위에 입춘방을 써 붙이고, 혼례시 함을 지고 오는 사람이 현관문을 들어설 때까지 실랑이를 하며, 祭祀를 모시고 난 뒤에 음식을 덜어 현관문 앞에 두는 예, 喪禮에서 사자밥을 현관앞에 두는 예¹¹⁾ 등을 볼 때 단독주택에서도 현관문이 住居의 주된 경계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아파트의 영향, 단독주택내에서 다세대가 거주하게 된 점 등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안방

현대주거에서 안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出生儀禮와 婚喪禮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뿐만 아니라 祭禮까지 수용함으로써 住居에서 주된 의례공간이 되고 있다. 출산후 집에 돌아온 아기와 산모는 주로 안방에 자리하고 때로는 삼신상을 차려 기원을 함으로써 안방은 일상의 空間과 구별된다. 이는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住居와 처음으로 만나는 것에서 진정한 出生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때 안방은 인간의 生이 시작되는 儀禮空間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婚禮에서 함을 받고 손님을 대접하고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며, 과거에는 주로 대청에서 모시던 祭祀를 모시는 경우

도 많아지고 있다¹²⁾. 이는 儀禮空間으로서 안방의 중요성 내지 中心性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안방이 전통적인 여성의례공간으로서의 機能을 상실해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儀禮空間으로서의 기능축소도 나타나는데, 거실에서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고, 臨終은 편리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맞이하는 등 안방에서 행해지던 많은 儀禮가 外部와 마루(거실)로 옮겨지는 경우를 보면 안방이 가족전체의 儀禮空間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해가고, 부부중심의 個室로서의 意味가 強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마루(거실)

원전한 內部空間으로 되었지만 마루(거실)는 여전히 상청을 차리고, 혼례시 손님을 대접하며, 祭祀를 모시는 媒介儀禮空間의 기능을 수행하고, 때로는 안방이 담당하던 儀禮空間의 기능까지 수행하여 가족의례의 중심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에 마루에서 이루어지던 儀禮들이 안방(주 11 참조)과 외부(혼례, 상례 등)로 옮겨지고, 또 마루에 빈소를 차리더라도 그 기간은 짧아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고¹³⁾, 媒介儀禮空間의 의미 또한 상실되었다.

12) <표> 세례공간 이용 비율

연구자	안 방	마루(거실)
김정규 外	33.6%	44.5%
박경옥, 김선중	43.5%	43.5%
이유미	35.3%	64.7%
이영호, 김계동	72.3%	24.1%

김정규 外,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권 2호, 1987.10.p.142. ; 박경옥, 김선중, 釜山, 蔚山地域 集合住宅의 公的領域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4호, 1988.p.18. ; 이유미, 앞의 논문, 1990.p.65. ; 이영호, 김계동, 앞의 논문, 1994.p.9.

13) 李裕美의 논문에서 23가구중 12가구만이 마루에 상청을 차렸고 나머지는 안방, 건넌방, 할머니방 등 다양화되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현주택에서 마루가 응접실처럼 되어 상청을 차리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탈상기간도 30-60년대에는 주로 3년, 70년대에는 1년과 100일이던 것이 80년대에는 주로 100일만에 탈상하며 또 49일만에 탈상하는 가구도 생겨났다고 보고하고 있다(李裕美, 앞의 논문, pp.83-97).

10) 金光彦, 앞의 책, 1989, pp.42-43.

11) 李裕美의 논문에서는 농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을 현관앞에 두는 경우가 23가구중 1가구가 있었다(李裕美, 앞의 논문, p.78).

4) 마당

오늘날 의례공간으로서의 마당을 보면 과거와 같은 儀禮空間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大禮는 예식장으로, 喪禮는 축소되거나 병원으로 옮겨가는 등의 기능분리로 마당은 儀禮空間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감을 볼 수 있다. 마당은 儀禮空間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마당을 매개로 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어울어지던 전통적인 마당의 意味는 상실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집에서 喪禮를 치르는 경우 마당은 여전히 儀禮에 이용(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등이 이용)되는데 자신의 평생을 담아온 住居에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병원에서의 의례보다 더 의미있을 것이다.

V. 結 論

儀禮는 인간에게 믿음과 변화의 意味를 부여하고, 가족을 조직하고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한다. 주거에서의 儀禮空間은 인간에게 聖性和 中心性, 正體性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살펴본 儀禮空間의 의미와 그 변용양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주거에서 의례를 통해 안방은 일상공간중에서 가장 聖스러운 空間으로 되고 사당은 절대적 聖域인 儀禮空間으로 된다. 또 안방은 여성 중심의 의례공간인 반면, 마루(대청)는 남성 중심의 의례공간으로 구분된다.

반면 현대주거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儀禮空間의 의미가 弱化 또는 變化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공간에서의 儀禮는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족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住居에서의 儀禮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한 부분으로 住居에 中心性和 正體性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보다 上位의 인간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주거내 儀禮空間의 의미 규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儀禮가 주거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 儀禮空間뿐만 아니라 住居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에 대한 實證的인 檢證은 다음의 과제로 돌린다.

參 考 文 獻

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1980.
2.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3. 金義淑,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 集文堂, 1993.
4. 金仁會 外, 韓國巫俗의 綜合的 考察,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5.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6.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7. 李光奎, 韓國人의 一生, 螢雪出版社, 1985.
8. 李東夏 譯, M.Eliade, 聖과 俗, 학민사, 1990.
9. 李英鎬, 金啓童, 都市住宅에서의 祭禮空間使用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0집, 1994.
10. _____, 通過儀禮를 통해 본 傳統住居의 空間的 意味,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21집, 1995.
11. 임재해,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 지식산업사, 1994.
12. 全京秀 譯, A.Van Gennep, 通過儀禮, 乙酉文化社, 1992.
13. 趙明基 外,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1986.
14. 韓國道教思想研究會 編, 韓國道教思想研究叢書 I, 汎洋社, 1988.
15. 韓相福 外, 文化人類學概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6. 山本浩 譯, Yi-Fu Tuan, 空間의 經驗, 筑摩書房, 1995.
17. 石川榮吉 外 編著, 生と死の人類學, 講談社, 1985.
18. 竹澤尙一郎, 象徴と權力, 勁草書房, 1987.
19. 青木保, 儀禮의 象徴性, 岩波書店, 1984.
20. Victor W.Turner, The Ritual Process, Rautledge & Kegan Paul, 1969.
21. Robert Anderson, The Cultural Context, Burgess P.C., 1976.

